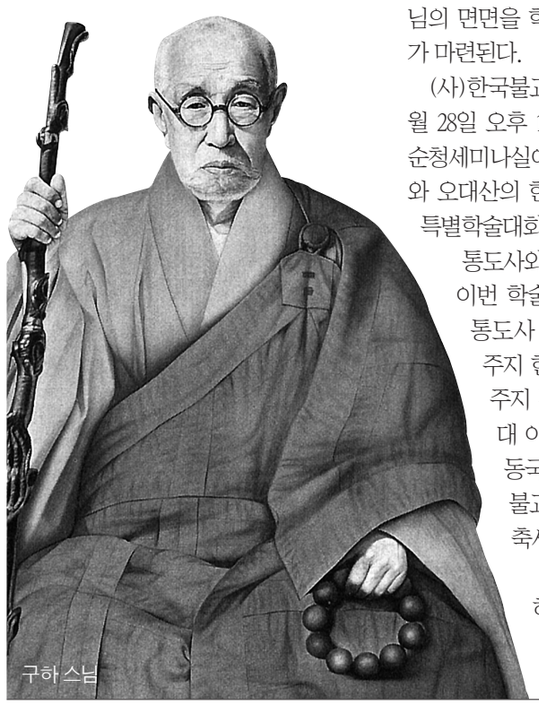
# 구하 · 한암 통해 본 영축산 · 오대산 불교 지성사

## 한국불교학회 10월 28일 두 선지식 조명 학술대회

**통도사 · 월정사 공동 주최**
**구하 · 한암 스님 학술 조명**
**"영축산, 오대산 선지식들의 살림살이 · 사상 확인 자리"**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구하 스님

일제 강점기와 근대 해방공간에서 불교중흥을 이끌었던 구하 스님과 한암 스님의 면면을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사)한국불교학회(회장 고영섭)는 10월 28일 오후 1시 동국대 혜화관 2층 고순청세미나실에서 '영축산의 구하 천보와 오대산의 한암 중원'을 주제로 추계 특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통도사와 월정사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 제4교구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과 윤성이 동국대 총장, 고영섭 (사)한국불교학회장이 참석해 치사와 축사를 할 예정이다.

통도사와 월정사를 대표하는 근현대 선지식을 공동으로 조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부로 나눠 진행되는 학술대회에는 구하 스님과 한암 스님의 사상과 생애를 총체적으로 조명하는 10편의 연구논문들이 발표된다.

김지연 (사)한국불교학회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1부 발표에서는 △구하와 한암의 관계 검토(이원석,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 △한암의 통도사 인연과 석담유성(石潭有性)(자현 스님,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교수) △구하 독립운동의 자료, 개요와 성격(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 △한암의 종단 인식과 조계종의 성립(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구하의 통도사 개혁과 그 현대불교사적 의의(최두헌, 통도사성보박물관 학예연구실장)가 발표된다.

2부는 최원섭 (사)한국불교학회 대외협력이사의 사회로 진행하며 △한암과 경봉의 서간문 법거량(윤창화, 민족사 대표) △구하의 문집과 통도사지 간행의 불교사적 의의(김순석, 안동국학진흥원 박물관장) △한암 · 탄허 · 희찬의 어록 및 증언록 간행의 불교사적 의미(이성운, 동방문화대학원대 불교문예학과 교수) △6.25 당시 통도사의 야전병원과 호국불교 역할(이성수, 불교신문 취재부장) △경봉과 탄허의 인연과 서간문(정도 스님, 동국대 선학과 교수)이 각각 대중에게 소개된다. 학술대회의 총평은 고영섭 회장이 맡는다.

이번 학술대회에 대해 고 회장은 "구하와 한암, 경봉과 탄허, 월하와 만화 등 두 산문의 집단 지성들은 영축산과 오대산을 넘어서서 한국 불교계의 수행과 포교, 교육과 역경, 불사와 문화창달 등의 분야에서 뚜렷한 지위와 확고한 위상을 확보해 오고 있다"면서 "한국불교학회에서는 대한시대 대일항쟁기와 해방공간 및 분단시대의 불교계를 주도해 온 영축산의 구하 천보와 오대산의 한암 중원 그리고 문중의 문도들로 구성된 불교계 집단 지성들의 행적과 사상을 정리해 현대 한국불교의 지성사를 조망해 보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 선지식에 대한 조명을 통해 대한시대 불교계 집단 지성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았고, 어떠한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를 살펴볼 것"이라며 "불자와 학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구하 스님은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에 통도사 주지와 삼십본산연합사무소 위원장, 불교중앙학림(지금의 동국대) 학장을 맡아 전법과 후학 양성에 힘썼다. 스님은 마산, 진주, 창녕 등에 포교당을 세우고 해동역경원(海東譯經院)을 설립하는 등 불교중흥과 민족정기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 해방 후 불교총무원장을 역임하고, 1965년 10월 3일 세수 94세, 법납 81세로 입적했다. 한암 스님은 조선불교 선교양종의 종정 및 조계종의 초대 종정을 역임하는 등 모두 4차에 걸쳐서 종정을 맡았으며, 근현대기 한국불교의 중흥과 전통 한국선의 부흥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

한암 스님은 종정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일체 명예에는 연연하지 않고, 세간과 출세간의 일에도 관여하지 않은 채, 오직 상원사 선원에서 27년 동안 두문불출, 참선수행과 납자 지도에만 전념했다.


한암 스님

# K-메타버스서 국보 반가사유상 만나볼까

## 국립중앙박물관, 제페토에 가상박물관 '힐링동산' 공개

가상 속 현실세계인 '메타버스(Metaverse)'에서 국보 금동미륵반가사유상(이하 반가사유상)을 만날 수 있게 됐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민병찬)은 "10월 8일 K-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 국립중앙박물관 가상박물관을 구축하고 월드맵 '힐링동산(feat.국립중앙박물관 반가사유상)'이라는 이름으로 공개했다"고 10월 13일 밝혔다. 제페토 '힐링동산'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국보 반가사유상 2점이 함께 존재하는 '메타버스'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관람객과의 만남이 제한되고 비대면 활동의 영역과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메타버스 콘텐츠의 소통 가능성에 주목해 왔다. 이에 따라, 디지털과 온라인에 기반한 새로운 경험과 소통에 익숙한 Z세대와 한국의 문화를 접할 기회가 적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가상 박물관 구축을 제페토와 함께 시도했다. 제페토는 전 세계 2억 명 이상의 누적 가입자와 90%의 해외 이용자, 80%의 10대 이용자를 보유한 한국을 대표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제페토 '힐링동산'은 반가사유상의 미소와 사유의 철학이 전하는 치유와 힐링의 메시지를 글로벌 Z세대의 감성에 맞추어 공간으로 형상화하고 경험을 설계됐다. 가상 세계에서 반가사유상은 박물관 전시실이 아닌 자연의 빛이 가득한 환경 속에 존재한다. 이는 기존의 가상

**임무 완수시 반가사유상 대면**
**글로벌 Z세대 취향 저격 눈길**

박물관이 현실을 복제하거나 재현하는 방식에 집중되었던 것과 확연히 다른 점이다.

또한, 참여자는 이 세계 안의 대상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다른 이들과 실시간 소통도 할 수 있다. 방문자는 이곳에서 여러 가지 퀘스트(임무)를 완수함으로써 반가사유상에 가까이 다가가 대면할 수 있다. 반가사유상에 다가가는 여정은 주어진 기존의 게임처럼 퀘스트를 경쟁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롭고 평온한 휴식과 놀이의 과정으로 설계됐다. 유저들이 함께 어울려 자유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며 이야기 나누고 사진과 영상을 제작해 자신을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이 공개한 가상박물관 '힐링동산' 사용 화면.

이 같은 가상 박물관 '힐링동산'에 대한 유저들의 관심과 호응도도 높다. 실제, 개관 후 4일동안 95만 명이 '힐링동산'을 방문했으며, 이중 93%가 해외 방문자였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메타버스 세계에서 중심이 되는 경험은 사용자 간 활발한 소셜네트워크 활동과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이용자 콘텐츠 창작(UGC, User Generated Contents)' 활동"이라며 "이는 주어진 과제에 대한 성취와 보상이 핵심적 참여 동기가 되는 온라인 게임과 구별되는 점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가사유상 브랜드관 조성과 맞물려 추진된 이번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은 박물관이 문화유산의 가치를 미래세대에게 친근하고 새롭게 전해 박물관의 잠재 관람객을 확대하고 반가사유상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여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 문명사 속 불교와 역병의 관계는

## 불교학연구회 11월 13일 추계학술대회

**ZOOM 온라인 방식으로**
**동북아 · 韓불교 해법 살펴**

현재 코로나19 펜데믹 사태를 불교적 프리즘으로 조명하고 인문학적 해법을 찾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불교학연구회(회장 임승택)는 11월 13일 오후 1시 '불교와 역병: 2500년의 아시아를 가로지르다'를 주제로 추계 학술대회를 ZOOM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한다.

총 3부로 나눠 진행되는 이날 학술대회는 인도 · 동북아 · 한국불교가 역병에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는지를 조명한다.

'인도불교의 해법'을 살피는 1부에서는 '불교에서 보이는 질병의 악귀들의 조복, 그리고 역할의 변화(심재관, 상지대)'와 '율장에 보이는 질병과 재난의 코퍼스(이자랑, 동국대)'가 발표되며, '동북아 불교의 해법'을 주제로 진행되는 2부에서는 '몽골 전통유목사회의 역병 관리와 신앙(김경나, 단국대)'와 '동아시아 불교, 영험과 치병의 사례-7~9세기 신라와 일본의 역병 인식과 불교의 대응(박광연,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대중에게 소개된다.

한국불교의 해법을 조명하는 3부에서는 '전근대 한국 불교의 전염병 대처법과 사회 안정화에 미친 영향(김수연, 국사편찬위원회)'과 '불교, 포스트 코로나를 전망할 수 있는가(김응철, 중앙승가대)'가 발표된다.

논평자로는 함형석(전남대), 김한상(동국대), 김장구(동국대), 김성수(서울대), 강호선(성신여대), 이상호(동국대)가 참여한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이병욱(고려대)을 좌장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불교'를 주제로 전 패널들이 참석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임승택 불교학연구회장은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그 이후의 사회 문화적 변화에 대한 인문학적 문제 분석과 해결책 제시를 위해 기획됐다"면서 "2500년 전에 인도에서 기원해 동남아,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나아가 서구로 전파된 '불교'라는 프리즘을 통해 2020년대의 팬데믹 현상을 문명사적으로 바라보고, 그 이후를 전망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